



예거 르쿨트르, 프랑스 비주얼 아티스트 기욤 마망에게 의뢰한 새로운 설치 작품, *PASSENGERS: THROUGH TIME* 공개

예거 르쿨트르는 올해 천문 현상과 위치메이킹 사이의 연관성을 기리는 스텔라 오디세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프랑스의 비주얼 아티스트 기욤 마망에게 특별히 의뢰한 새로운 예술 설치 작품 *Passengers: Through Time* 을 선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일련의 작품 의뢰를 통해 창의적인 문화 세계를 발전시켰으며, 위치메이킹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적 수준의 공예가들과 협력하여 시계 제작과 예술 간의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위치메이킹 혁신이라는 그랑 메종의 위대한 유산에 따라 진행되는 협업은 예상치 못한 형태를 탐구하는 아티스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욤 마망은 조각과 공간,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재정의하는 정교하면서도 인상적인 관계를 그려내며 빛과 소리,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은 지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물리학 법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리와 빛을 혼합함으로써 이미지와 서사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관람객을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사색과 성찰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 작품의 가장 깊은 매력은 관람객에게 거의 초월에 가까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작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념적인 동시에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선보이려 노력합니다. 항상 실험할 새로운 도구를 찾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히 이에 도움이 됩니다. 빛을 다룰 때 우리는 항상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 신비주의적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제 작업은 1950 년대 이후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나 프랑수아 모렐레(François Morellet) 같은 예술가들이 시작한 연구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며 추상적인 형태나 움직임, 빛에 관심이 많습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가지고 나와 대중 공간에 선보이고, 새로운 유통망을 찾고자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기욤 마망의 작업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구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항상 현실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와 건축, 물리학의 패러다임 그리고 이번 예거 르쿨트르 의뢰 작품에서의 천문 현상과 같은 주제를 통해 자연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서 오늘날의 양면성을 표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기움과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방식은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련되면서 근본적으로 복잡한 그의 시스템은 위치메이킹과의 평행선을 이룹니다. 시간의 의미를 탐구하는 *Passenger: Through Time* 은 올해 그랑 메종의 스텔라 오디세이 테마를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Passengers: Through Time

예거 르쿨트르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움 마망은 찬사를 받은 그의 설치 작품인 *Passengers* 의 새로운 장을 선보입니다. 그 두 번째 챕터인 *Passengers: Through Time* 은 천체 및 천체 관측에 초점을 맞추어 방문객 또는 ‘승객’에게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되는 시간과 공간, 빛 사이 연관성에 대한 탐구를 보여줍니다.

기움 마망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과제는 하늘 관찰과 시간 측정 간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 시계 제작자와의 교류를 통해 시공간의 연결고리를 전사할 수 있는 설치 미술을 고안했습니다. 각 전시장의 지리 좌표와 양력, 음력, 시간표에 따라 설치된 프로그램 덕분에 시각 및 음향 콘텐츠가 끊임없이 새롭게 이어집니다. 이 설치 작품은 빛 반사로 이루어진 운동 장치를 통해 우리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시공간 여행을 선사합니다.”

Passengers: Through Time 의 열정적인 기획 단계에는 아티스트와 그르노블 행성 및 천체 물리학 연구소(Institute of Planetology and Astrophysics of Grenoble) 간의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현대 지식의 관점에서 시간과 우주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모델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단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전사하기 위해 생성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현실의 수학적 기반에 순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몰입적이고 인상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워크스루 캡슐 안에 포함된 운동 장치를 통해 시각적, 음향적 움직임과 무한한 반사, 현기증이 날 듯 아찔한 원근법을 선사하는 설치 작품은 방문객이 주인공이 되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 세계로 데려갑니다. 승객들의 마음속에 펼쳐지는 빛과 소리, 움직임의 정교하고 인상적인 조화는 우주의 광대함을 담아내어, 시간이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Passengers: Through Time 은 스텔라 오디세이 전시의 핵심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각 전시장의 태양력과 지리 좌표에 맞춰 콘텐츠를 계속해서 수정함으로써, 천체 현상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기욤 마망 소개

프랑스에서 출생한 기욤 마망(Guillaume Marmin)은 리옹 2 대학교(University of Lyon II)에서 교육을 받은 후 아르피스 에콜(ARFIS École)에서 영화, 시청각 미디어 및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음악과 공연예술로 연결되는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형태의 스토리텔링과 공연매체를 뛰어넘어 비주얼 크리에이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실험적인 영화 제작자들의 영향을 받은 기욤 마망은 이미지와 소리, 리듬, 대비 및 날렵하게 움직이는 형상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공감각적 언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 마망의 작업에는 3D 조각 및 건물에 대한 매핑, 사진 및 스크린 인쇄에 대한 투사도, 움직이는 신체와 연기를 활용합니다. 건축가, 음악가, 조명 디자이너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그의 몰입형 대중 공간 작업은 무형에 신체를 부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현실의 수학적 기반에 순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기욤 마망의 작업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구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실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Around the Island*), 기후 현상(*Après-nous le Déluge*), 건축(*Raster*), 물리학 패러다임의 역사(*Timée*)와 같은 주제를 통해 자연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서 오늘날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STELLAR ODYSSEY 소개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균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몰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